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유현형 사도요한, 오재영 제노

다음주 미사 독서:

금주 미사 복사: 조성익 토마스 모어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손준규 오셉, 손제규 마티아

금주 미사 해설: 권민호 바오로

다음 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3 구역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성 가 대 연 습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교리 모임

골프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11월 30일)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미정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2 구역

3 구역

대학원 구역

학부생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매월 첫째주 토요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

미정

미정

† 오늘의 묵상

스위스의 정신 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은 누구나 비슷한 마음의 변화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 하며 5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 단계의 반응은 ‘부인’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야. 내가 죽는다니, 그럴 수는 없어!’ 하며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2 단계는 ‘분노’입니다. 필사적으로 부인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이 이런 가혹한 운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분노입니다. 3 단계는 ‘거래’입니다.예컨대 “목숨만 살려 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절대자에게 제안합니다. 4 단계의 반응은 ‘억울함’입니다. 거래에 대한 제안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슬픔과 낙심에 빠집니다. 이때에는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사라지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습니다. 그녀는 이 마지막 단계를 ‘긴 여행을 앞둔 최후의 휴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여러 표징들이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경허히 받아들이게 해 줍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숙시키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대림 제 1 주일]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12월 1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3, 14-16

<제 2 독서> 테살로니카 1 서, 3, 12-4,2

회답송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자히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루카복음, 21, 25-28, 34-3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94

봉헌: 217

성체: 180

파견: 91



존재론적 삶이 부재한 한국교회

맹주형 (전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회에서 최초로 환경파괴의 문제를 시대적 현안으로 거론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한 문헌은 교황 바오로 6 세의 교서 ‘팔십 주년’이다. 하지만 그 이전 1965 년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에도 사실 그리스도교의 인간관과 자연관이 담겨있다. 사목헌장이 발표된 1965 년 당시는 한마디로 전쟁과 위기의 시대였다. 1965 년 8 월, 미 의회는 사실상 베트남에 대한 선전포고인 ‘통킹만 결의’를 의결하며 공개적인 군사개입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고, 파키스탄과 인도 두 나라도 전쟁상태였다. 역설적으로 이 같은 전쟁의 시기에 과학은 도약한다. 수많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사용되며 도약한다. 세계 1, 2 차 대전 당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그 예이다. 사목헌장을 읽어보면 당시 바오로 6 세 교황의 세상에 대한 걱정이 드러난다. 바로 개발의 시대,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경제만능주의 정신,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악화, 부유한 나라들과 개발도상국들의 격차, 경제적 예측, 굶주림, 노동자, 농어민들의 열악한 삶을 교황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시 바오로 6 세 교황의 환경에 대한 우려는 ‘현세 사물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 현세 사물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이유로, 인간이 피조물을 창조주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한다는 우려다. 사목헌장은 말한다. 거대한 군중은 생활필수품이 전혀 없는데, 어떤 이들은 저개발지역에서도 호화롭게 살며 재화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을(사목헌장 63 항). 다시 말해 사치와 빈곤과 소수의 막대한 결정권에 대한 우려였다. 그리고 교황은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 ‘소유의 삶’으로 보았고, 그 소유는 일찍이 생태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했던 ‘죄’의 상황이었다.

바오로 6 세 교황, 사목헌장 통해 ‘소유의 삶’에 문제 제기

오늘날 생태계 파괴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관점이 바로 ‘소유의 관점’이다. 산업문명의 가치관은 소유 중심의 세계관이고, 소유는 권력과 지배의 시작이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보아도 생태위기의 근본문제는 바로 하느님의 것을 인간이 소유하고 갈취하는 데 있다. 사목헌장을 통해 바오로 6 세 교황이 ‘소유의 삶’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로 생태계 파괴의 근본문제를 ‘하느님의 것’을 인간이 자기 뜻대로 소유하고, 갈취하는 소유의 삶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오로 6 세 교황의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그 해결의 실마리는 ‘의식의 전환’이었다.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새사람이 된 우리네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인간의 책임’에 있고, ‘청빈과 자유의 정신’으로 피조물을 사용하고 누릴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사목헌장 37 항). 그러면서 교황은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떠한 종교이든 모든 신앙인은 언제나 피조물들의 언어 안에서 창조주의 현현(顯現, 나타남)과 목소리를 들어왔다.”(사목헌장 36 항)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오히려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 가치를 지닌다.”(사목헌장 35 항)며 ‘존재론적 삶의 태도로의 전환’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존재론적 삶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존재 중심의 세계관은 피조물들도 하느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같이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동료로서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이것은 구원의 확장이다. 우리가 만인의 형제이며, 모든 피조물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세계관의 연장이며, 이것이 화해이며 관계의 회복이자 구원이 된다.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1. St.Paul 임대료 마련을 위한 특별 모금 안내
 - 기간: 대림 기간 4 주, 크리스마스 전까지
 - 모금액 목표: \$2,000
 - 자세한 사항은 e-mail 로 제공지
2.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안내
 - 기간: 12 월 5 일~10 일(기간 내 매일 오전 8 시~오후 5 시)
 - 장소: Glenview Commons 쇼핑몰 내 (161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3. 12 월 독서,간식 및 청소는 3 구역입니다.

창조주의 모습과 목소리 무시하고 외면하는 오늘날 교회

이 같은 사목헌장의 관점에서 비추어본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황 바오로 6 세의 권고처럼 우리 교회는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사목헌장 에서 말하듯이 모든 신앙인은 언제나 피조물들의 언어 안에서 창조주의 현현(顯現, 나타남)과 목소리를 들어야만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토건 개발사업과 재자연화 문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문제 등 피조물의 파괴와, 그 안에서 죽어가는 창조주의 모습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제주 강정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연행되고 구속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일치된 저항과 반대의 목소리조차 없다. 얼마 전 추계 주교회의에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수도자들이 핵에 대한 교회적 가르침을 달라고 주교님들께 청하였지만 주교회의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그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런 유보야말로 오히려 정치적인 모습이다. 어떻게 우리와 다음 세대 후손들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한낱 대선이라는 정치적 사안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생태적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은 명동성당 재개발도 문제다. 서울시 원전 1 기 줄이기 정책과 연계된 명동성당 재개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묵묵부답이다.

대부분의 교구와 성당에서 우리 시대 중요한 생태적 현안인 4 대강, 핵발전소,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생명과 평화, 창조질서보전의 존재론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소유의 가치’에 빠져있는, 그리하여 자본과 물질의 가치로 세속화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티칸 공의회 50 주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존재론적 삶’이다.

직강화(直江化)되어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 자연이 하느님의 자기표현임을 느끼며, 위대한 생명의 현상임을 느끼는 것. 그리고 참된 제자 공동체를 지향하며 ‘무소유’의 정신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 과제이자,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 선택을 위해 교회 공동체는 신자 개개인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생태적 구원관을 이야기하고, 창조 중심의 영성을 느끼며, 원죄(原罪)보다는 원복(原福)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닫힌 교회가 아닌, 우리 바로 옆의 가난한 이웃들과 해고 노동자들과 풀벌레와 나무 등 지구 공동체에 대한 열린 관심과 사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들이 시작될 때, 현대 산업 문명과의 단절이, 소유의 삶과의 단절이 시작된다. 존재론적 삶의 시작이다. 바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점이다.